2022년 11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경기북부지부

	소속 / 이름	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	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1	햇빛21작은도서관/윤영연	생각의 지도/리처드 니스벳 지음, 최인철 옮김/김영사	동양인들은 모순과 논쟁을 회피하지만 서양인들은 법률,정치,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논쟁을 끌어들인다.
2	강촌공원5분걸음예쁜작은도서관/조혜영	부르주아의 시대 근대의 발명 / 이지은 / 모요사	19세기인들의 삶의 바탕이던 근대의 도시를 첫장으로 19세기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사, 가장 19세기적이라 할 만한 이벤트였던 만국박람회와 기차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골고루 다룬다
3	그루터기 작은도서관/조현아	히틀러를 선택한 나라/벤자민 카터 헷/눌와/	트레블링카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, 바비 야르 학살이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이뤄진 죽음의 행진을 1933년에 상상할 수 있었던 독일인은 거의 없었다.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. 그러나 순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통 몰랐기 때문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. 나중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당시 독일인보다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. 그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.
4	마상공원작은도서관/김은미	어른의 그림책/황유진 지음/메멘토	그림책이 나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. 그림책이 해주는 일은 살아가는 나와 읽는 나, 치유하는 나와 치유받는 나 사이에 좁은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다.
5	모당공원작은도서관/김정희	공간의 미래/유현준/을유문화사	공간이 만드는 사회시스템이 주는 제약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조종한다. 이때 공간이 만드는 권력의 크기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비례한다.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공간에 의해 더 큰 권력이 만들어진다

2022년 11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광주지부

	도서관명 / 이름	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	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1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너와나/사이다 글.그림/다림	서로 다른 너와 내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. 너를 통해 나를 배우며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행동도 결코 작지 않다.
2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사라지는 것들/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글 그림. 정윤진 옮김/비룡소	무상함에 대해 이야기나눌수 있는 그림책이다. 세상 모든것은 항상하지 않다.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변화한다(생멸변화)는 것을 종이책의 물성을 잘 살려서 보여준다.
3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직선과곡선/"피아 발렌티나 그림/데보라 보그릭 글/송다인 옮김/브와포레	직선과 곡선은 서로 매우 다른 존재다. 서로 다르게만 보이는 직선과 곡선에 공통점은 있는걸까?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그림책이다.
4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내안에 내가 있다/알렉스 쿠소 글/키티 크라우더 그림/신혜은 옮김/바람의아이들	내가 항상 나인건 아니었다. 내가 되기 전까지 나는 내 안에 없었다. 다른 곳에 있었다.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걸까?
5	책돌이도서관/신화숙	이 색 다 바나나/제이슨 풀포드 글/신혜은 옮김/봄볕/타마라 숍신 그림	사과가 항상 빨간 건 아냐. 폭풍우 칠 때 구름 본 적 있해 질 녘에는? 구름 색깔은 언제나 흰색일까? 개들도 다 색이 달라. 세상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색을 갖고 있어. 바로 너도, 나도, 우리도. 어?
6	아이숲어린이도서관/김영아	채사장의 지대넓얕/채사장, 마케마케/(주)돌판북	어린이를 위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책으로 추천합니다.

2022년 11월 #작은도서관 #무슨책읽어?

사무국

	소속 / 이름	책제목 / 저자 / 출판사	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
1	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/김진희	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/비욘 나티고 린데블라드 지음, 토마스 산체스 그림, 박미경 옮김/다산초당	"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." (8p) 지나 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. 그리고 책에서 알려 준 것처럼 주먹을 쥐었다 천천히 펴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껴지며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아요.
2	(사)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/백영숙	심미안 수업 / 윤광준 / 지와인	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면,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. 행동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뀐다 (p.92)